

사·부·대·중

나무심기와 포교

지난 식목일, 땅 냄새도 맡고 나무도 심을 겸해서 파주에 갔다. 몇 년 동안 이곳에 나무를 심었는데, 지역 특성을 모르고 무조건 비싸고 좋다고 생각되는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나무의 절반 이상이 한겨울을 지나고 나니 죽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혜관스님 계간(불교문예)발행인

것은 주민들과 사귀는 일이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기준에서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충돌 내지는 내내 섭섭하게 지내게 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던 말의 뜻을 새삼 새겼다.

여하튼 시골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도회지 사람이라고 무조건 멀리 하면 두터운 벽이 생긴다. 주민들과 자주 만나 얘기하고 그 지역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인내를 가져야만 서울과 시골이란 거리감이 줄어들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디 가든 사람 사는 곳인데 배타성만 있었는가. 얼마나 서로 이해하는냐에 따라 좋은 이웃이 되지 않겠는가.

포교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나무처럼 무작정 심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그 지역과 이웃 그리고 타종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그곳에 맞는 포교를 서서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지역에 불교가 뿌리내릴 수 있고 충돌 없이 이웃이나 다른 종교인들과 융화할 수 있다. 토양에 맞는 나무라야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뿌리가 건실하고 잎이 무성해도 토질에 맞지 않으면 나무가 살지 못함을 깨달았다. 무성한 숲과 갖가지 꽃이 만발하리라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나무를 죽게 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인내가 필요함을 느꼈다. 뿌리가 튼실하게 땅에 박혔는지, 줄기는 부실하지 않은지 살펴야 하고, 증세에 따라 거름을 주든지 가지치기를 해주든지 하는 손길이 미쳐야 한다. 나무도 그러할진대, 하루에도 수십번씩 변화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인간관계야 오죽하겠는가.

시골 가서 농사를(주말농장) 지으려면 땅과 농기구만 있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농사짓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더 어려운

되풀이되는 오류로부터의 해탈

최근 수행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활구참선,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17일 열렸다. 동국대 BK21 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단(단장 조용길 교수)이 연 뉴욕주립대학 박성배 교수 초청강연회. 불교대학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다함께 세미나실을 가득 채워 수행법과 화두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30여년 동안 미국에서 불교학을 강의,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제원효학회 미국본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진리와 스승에 대한 100%의 존경, 즉 철저한 자기부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라고 진단하고 "활구는 난파(難破)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수의 강연문 요약.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 특강 '활구참선, 무엇이 문제인가'

고려 중엽의 지눌(知訥, 1158~1210) 스님이 지은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은 간화선(看話禪)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다룬 한국 최초의 선서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논문이다. 이 글의 말미에서 지눌 스님은 다음과 같은 뼈아픈 '세상 한탄'을 털어놓는다. "모두들 참선한다고 아담이지만, 활구 참선(活句 參禪)하는 사람은 눈을 찡그리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한탄 속에 담긴 메시지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활구 참선'이란 말은 '살아 있는 참선'이라는 뜻으로 '죽어 있는 참선'이란 뜻의 '사구(死句) 참선'을 날카로운 칼로

지치면 좋고, 그러다가 잠이 깨면 또 다시 상념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참선은 바로 죽은 참선이다.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보았을 것이다. 선주 선장 설계자 그리고 이 배를 탄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러나 배는 폭풍우에 난파됐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다. 또는 문제를 알고 있으며 대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난파당해야 한다. 활구는 난파의 현장이다. 그것이 없으면 사구이다. 활구 자체가 난파이다.

왜 사람들은 운회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선승들의 대답은 바로 활구 참선이다. 그들은 운회의 근본 원인을 산 참선과 죽은 참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운회의 근본원인을 인간의식의 부자유에서 본 것 같다. 인간의식의 부자유는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틀과 맞물려 있다. 언어의 틀은 의식의 틀과 항상 맞물려 있다. 언어의 분석적인 성격과 이분법적인 경향은 그대로 인간의식의 분석적이고 이분법적인 경향과 맞물려 있으며, 이것은 또한 인간의 가치관 성립과 신념 체계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박성배 교수

1933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 62~69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77년 스탠퍼드대 뉴욕주립대 교수 부임, 한국학과 주임 역임. 뉴욕주립대 '한국학연구소' '한국사상' 편집인. 97년부터 동국대 석좌교수. 국제원효학회 미국본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원효 전서의 영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논저로 '해인사 팔만대장경 서술적 목록' '불교의 믿음과 깨침의 관계 연구'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론' '제종의 논리' 등이 있다.

선승들은 말길이 끊어지고, 뜻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북북 끊어지는 것이 곧 활구 참선이라고 한다. 참선을 한다면서 말길, 뜻길, 마음길이 뚜렷하다면 그것은 참선이 아니다. 사람들은 왜 참선을 한답시고 앉았으면서도 활구 참선이 아니라 사구 참선을 하게 되는가. 화두의 의미를 깨기 때문이다. 의미를 깨고 있는 한 말길이 생기기 마련이다. 말길이 생긴다는 것

은 곧 사귀는 일과 만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신문이나 잡지에 자주 나타나는 화두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라는 말과 천장판으로 다르다. 눈을 찡그리고 보아도 활구 참선하는 이는 보이지 않고, 천하가 사구만을 볼 뿐이다. 모두가 말길과 뜻길과 마음의 길에 사로잡혀 있다. 있는 것은 연장판이고, 즉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듯이, 끊어지지 않는 깨침도 없다. 사구는 화두가 아니다. 한마디로 현대는 화두 없는 시대이다. 난파가 없기 때문이다. 활구 참선의 종교적 성격과 신앙적 차원이 사라지고 말았다.

활구 참선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제일 먼저 화두가 방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화두는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방법이랄지, 자성을 깨치고 무상대도를 성취하는 길이라는 생각에는 이미 의식의 분별이 있다. 현재와 미래가 분열되고, 화두와 일상이 분열된다.

시대맞는 화두 운운 지적사색 산물일뿐 여일한 선은 '몸참선'

요즘 일부 선학자들이 옛날 화두는 새 시대에 맞지 않으니 새 시대에 맞는 새 화두를 개발해야 한다고 운운하는 것도 모두가 화두를 방법으로 보고 하는 소리들이다. 한마디로 화두를 방법으로 보는 것은 지적 사색의 산물일 뿐이다. 화두를 어떤 목적 성취의 방법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화두 참선에서 종교적인 성격을 실증시켰다. 여일한 참선은 '몸 참선'이다. 겉모습을 꾸미고, 속으로 의미를 찾으며, 몰랐던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반짝거리는 참선은 '몸짓 참선'이다. 이러한 '몸짓 참선'은 겉보기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물거품 같은 것이다. '몸 참선'을 할 때 참선은 종교적인 성격을 되찾게 되고, 화두는 사구가 아니라 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악 회양 스님은 육조 스님의 '어디서 온 물건인가'라는 물음을 8년 동안이나 붙잡고 씨름했다. 진리와 스승에 대한 100%의 존경, 이는 곧 철저한 자기부정이었다.

정성은 기자 swung@buddhaya.com



◇17일 열린 박성배교수 초청 '활구 참선,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특별강연회.

목탁소리

한명우 (취재1부 기자)

전통문화 파괴 안된다

조계사가 현재 조계사 대웅전 뒤편에 지어지고 있는 70m 높이의 삼성생명 수송동 사옥과 관련, 외벽을 전면 유리로 장식하는 문제와 15~16층의 일부를 축소해 건축하는 방안을 최근 삼성생명 측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16일 조계사를 방문한 수송동 사옥 건설 담당 실무책임자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경열 상무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과 만난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은 미룬 채 '조계사가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다'고만 답해, 결과에 따라서는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계사가 외벽의 유리 장식과 조계사 방향의 15~16층 일부축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 건물이 설계대로 들어설 경우 조계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수행생활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계사는 대웅전과 신축건물의 거리는 불과 56m 밖에 안돼 현재의 설계대로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계사 대웅

전 이 건물에 막혀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돼 사찰의 기능을 크게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외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현재 조계사 인근은 인사동-운현궁-경복궁에 이르는 전통문화지역이 '문화벨트'로 지정돼 문화재 보존과 시민 복지공원 조성사업이 서울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조계사 바로 옆 옛 우정총국 자리를 시민문화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조계사를 축으로 수송공원과 옛 우정총국을 잇는 공원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초현대식 외장이 전통문화와 어울릴 리 없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조계사는 이제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삼성 측이 조계사의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통문화를 훼손하는 일만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통문화는 조계사만의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삼성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활구는 난파의 현장 그것이 없으면 사구 활구 자체가 난파

도려내는 말이다. 임제종의 근본정신을 따르면, 참선하는 사람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산 출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임제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산 참선'은 외면당하고, 썩은 환부와 같은 '죽은 참선'이 점점 더 만연하고 있는가.

불교를 해탈의 종교라고 한다면, 그 해탈은 운회, 즉 되풀이되는 오류로부터의 해탈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참선이란 바로 운회의 되풀이와 다를 바가 없다. 참선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참선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참선하는 이들을 보면 이것저것 상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통도사 삼신불탱화 조성 석채시주 동참 안내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보물 제1042호인 대광명전 후불탱화를 석채물감을 사용한 전통기법으로 조성하여 천년 후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석채시주를 동참받고 있습니다. 이무췌록 이번 탱화조성 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선근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동참방법 : 석채물감 10g 기준
동참금 : 10만원
접수처 : 통도사성보박물관 괴불전
문의전화 : 055)382-1001, 384-0010

* 접수된 물감은 탱화조성에 직접 사용되며, 다리가 인쇄된 배접지에는 축원문을 기록하여 탱화 조성 때 사용하게 됩니다.
 * 불사 동참자 1,000분에 한하여 자신이 시주한 석채가 담긴 순은 옴자에달을 드립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신허 합장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합장

통도사성보박물관 무료참배 안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상 패물을 친견할 수 있는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개관 15주년을 기념하여 운사월에 적멸보궁을 참배하고자 하는 신도단체에 한하여 박물관을 무료 개방코자 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기간 : 2001년 5월 23일~6월 20일(윤달 한달간)
 참배기간 : 오전 8시~오후 6시
 대상 : 전국 사찰 및 신도단체
 문의전화 : 055)382-1001, 384-0010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합장

* 최첨단 유물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는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사찰과 불자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문화재를 기증·기탁받습니다.